

## 1998 강구조건축물 설계공모 작품전

지난 7월 1일부터 5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는 "1998 강구조건축물 설계공모전"에 접수된 작품들이 전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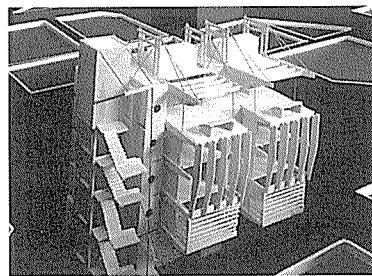
한국 철강협회(Steel Construction Club) 주최로 개최된 이번 설계공모전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지정된 건축자재 철골구조를 이용한 설계공모전으로 철골구조 건축물은 경제성과 재활용성, 가변성이 가능하며, 또 공간표현이 자유롭고 환경친화적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습식공법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단순한 공법이나 단조로운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음에 따라 철골구조 특성의 이해와 저변확대를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 공모전의 대 주제는 철골구조를 이용한 환경친화적 계획으로 철골구조에 대한 이해와 실험성에 대한 문제, 철골구조가 대상지역에 어떻게 적용하고 맥락적인 관계를 갖는가 하는 문제, 자연친화적인 건축계획에 대한 문제를 얼마나 만족시키는가로 전국의 많은 학생들의 관심 속에서 32개대학 313팀이 참가신청을

했고, 최종 작품제출을 20개 대학 127팀이 접수되었다. 심사는 1차 본심사를 나누어 시행 최우수상에 Spine 미술동호인을 위한 갤러리 계획안(이기태+김준형+전수현), 우수상에 Urban Relationship(김병숙+장현수) Co-Determine(김은경+조은혜), Float in the Air(유해연+문용호), 장려상에 Plug in Street(이현정+홍동필+고은미), Start Point(박병규+이윤미), 불협화음(김은미+김미성+송제남), 인사동 II(김 석+엄민호+오승섭) Dualism(임규환+전성진+구희정), Steel Leaf(백종태)를 선정 발표했다.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Spine미술동호인을 위한 갤러리 계획안은 철골구조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설계에 적용시켰으며 성실하게 계획의도와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 학생작품으로써 모범적인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또 이 작품은 부분과 전체 그리고 각 분야를 조합하는 총체적인 능력 또한 뛰어난다는 평을 받았다.

### ▶ 최우수작 / Spine 미술동호인을 위한 갤러리 계획안 이기태(충남대 대학원 건축공학과) 김준형(충남대 건축공학과) 전수현(충남대 건축공학과)



#### 개요

대전광역시 대흥동 부근의 기존 화랑과 화방은 시설이 낙후되고 노후되어 쾌적한 전시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대전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행사를 제공하는데 제약이 있어 시민들로부터 소외되고 잊혀져 가고 있다. 이에 동호인들의 모임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의 갤러리를 제공하여 쾌적한 전시공간과 휴게공간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프로그램

- 21세기의 상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문화 중심지의 모습을 담도록 강구조 활용
- 미술동호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작업공간을 제공하는 지역미술계의 중심기능 부여
- 화방을 두어 시민과 동호인이 재료를 구입하면서 자연스럽게 전시공간을 관람할 수 있도록 동선유도
- 조각전시공간과 그림전시공간을 분리
- 동호인과 지역 미술인을 위한 사무실을 두어 지역의 문화중심 기능 수용
- 시민의 휴게공간으로 반 외부의 카페테리아를 두어 전시기능과 휴게기능을 수용

#### 구조개념 · 척추

- 중심의 구조기둥으로 보를 와이어로 로프로 들어올려 하부에 기둥이 적은 공간활용 가능
-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주동선과 설비덕트를 담은 척추에 해당하는 축을 두어 좌우공간 배분
- 배관과 환기 등 설비가 완전히 갖춰진 캡슐화장실을 두어 대량생산과 강구조를 활용한 건식공법에 적용하여 시공시간 단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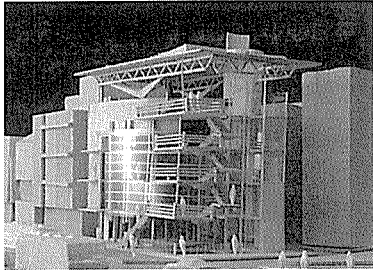
#### 환경친화

- 계절의 변화에 따라 Vent를 통해 외부 수목공간을 활용
- 여름
  - ...바닥과 유리벽 상부의 통기구를 옴.
  - ...더운공기는 상승되어 상부 Vent로 배출시킴
  - ...찬공기는 하부 Vent로 유입 대류현상
- 봄, 가을
  - ...태양열로 데워진 실내공기가 상승되면서 Vent를 통해 신선한 공기를 아래로 끌어 들여 자연적인 내부공기순환 일으킴
- 겨울
  - ...Vent를 닫아 방열기에 의해 데워진 공기가 실내공간에서 작은 대류현상을 일으킴
  - ...루버를 이용한 에너지 절약설비 제안
  - ...최상층의 테라스 상부의 태양열 집열기를 활용해 자연에너지 활용.

▶ 우수작 / Urban Relationship

김병숙(고려대 대학원 건축공학과)

장현수(고려대 대학원 건축공학과)



경제적인 수준과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에게 소비와 유희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켰다. 냉혹한 경제적인 논리에 맞서 근린생활시설의 유형은 어떠한 장소에 대입하여도 존재할 수 있는 무성격하고 무책임한 형태와 공간을 소유하고 있고 그러한 획일화와 무질서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무성격화시키고 역으로 인간을 문화의 소모품으로 획일화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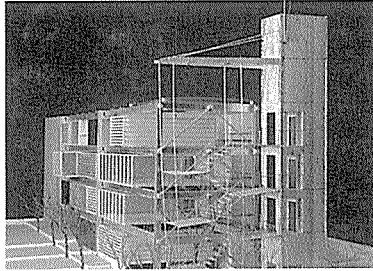
이 Site의 대로변의 풍경과 뒷골목(피맛골)의 서로 다른 풍경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다. 도시에서의 진솔한 삶은 뒷골목에서 그 인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러한 에너지가 이 Site의 성격을 강하게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종로와 피맛골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위의 요소, 즉 만남과 헤어짐의 동선 머무름과 지나가는 동선 등 일상의 행위와 맞물려 있는 대지에 상호관입적이며 융통성있는 행위들을 유추하고 서로 다른 차원의 가로에 대한 교류의 맥락과 탐골공원과 종묘시민광장까지의 보행의 흐름에 대한 가능성의 요소들을 재해석하여 유추할 수 있는 인간을 주체로 한 행위의 공간을 제시하고자 한다.

▶ 우수작 / Co-Determine

김은경(홍익대 대학원 건축학과)

조은혜(광운대 대학원 건축공학과)



도시는 다양한 생활을 수용해야만 하고 그 결과 다양한 표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근린생활 시설은 다양한 도시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현재의 도시 상황에서는 지역마다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나며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외형적인 통일성이 전혀 없는 상태다. 강구조 구조물을 이용해 근린생활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일단 이러한 도시의 상황으로 고려해 보았다.

구조개념

개인의 유니트 박스를 자유롭게 조절하기 위하여 깊이는 유니트 박스의 깊이인 7.5m를 유지하고 폭은 가능하면 Long Span으로 계획했다.

Long Span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건물의 구조미를 창출할 수 있다.

Plug in the structure

구조체의 외벽에 일정한 모듈의 계획 서비스 시설(화장실, 창고 등)을 배치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계획하였고 일정한 모듈의 설비 서비스 장치를 마련하여 각각의 Box에 이미 장치되어 있는 배선, 배관을 Plug in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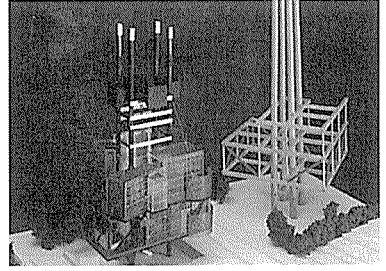
공기 단축과 환경 친화적 개념

구조체만의 조립으로 건물이 형성되기 때문에 건물의 공사 기간은 기존 근린생활 건물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짧아지고 이것 또한 철골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점이다. 또한 자신의 개인 거주 Box를 가지고 도시의 어느 지점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요즈음의 환경 친화적인 개념과도 일치한다.

▶ 우수작 / Float in the Air

유해연(이주대학교 환경·도시공학부)

문용호(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Conce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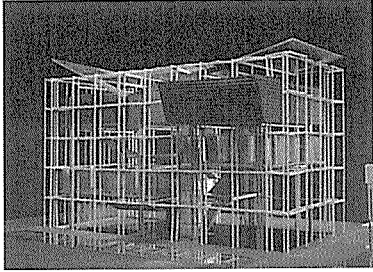
1층과 지하, 2층과 3층으로 서로를 성격이 다른 두개의 공간으로 나누어 대학로의 중심, 대학로의 약속장소로 인식되고 있는 현재의 대지위에 공공공간과 사적공간을 한 건물안에서 Design해 보았다.

· 2층과 3층의 사적 공간, 상승된 공간, 내부 공간: 부유하는 듯한 느낌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대지주변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상징적 공간, 이 공간은 De Stijl운동의 응용으로 평면상에서 동선체계와 실물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분절되었고 가볍고 깔끔한 이미지의 알루미늄 패널과 투명한 유리 마감으로 떠 있는 느낌의 투명하고 솔직한 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이 Mass는 중앙의 기둥에 각 바닥판이 볼트와 용접으로 강접합되고 Wire가 힘을 전달하여도 Deformation이 일어나지 않게 하였다. 4개의 기둥사이의 공간에는 하늘, 즉 Universal한 공간으로 뻗어나가는 매달린 긴 유리계단(Suspended Stair Case), 로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지상으로부터 20m 정도 되는 부분에는 4개의 거리방향의 Multi-Vision이 달려있어 가로의 표지판 기능을 해주는 중심점적 건물을 형성하고 있다.

· 1층과 지하의 공적공간 하강된 공간 외부공간: 2층과 3층에 대조적으로 두꺼운 철재패널과 기타재료들로 가라앉아 있는 무거운 이미지를 창출하였다. 중심점적 기능의 건물성격에 부합되는 새로운 보행자로의 개념은 이 공간의 주된 Concept이 되고 있다.

▶ 장려상 / Plug in Street

- Small Fashion Shop & Gallery  
 이현정(충남대 건축공학과)  
 홍동필(충남대 건축공학과)  
 고은미(충남대 건축공학과)



Concept

Plug in Pod를 이용하여 수평적인 상가의 적층으로 보행자로를 수직으로 확장 자연환경을 이용한 환경친화.

대전 거리의 패션 상점들은 접지성으로 인해 1층에 제한적으로 위치하게 되고 2층 이상의 경우에는 내부 지향적 공간사용으로 외부 입면은 1층에 비해 초라해 길의 이미지를 좋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에 Pod개념을 사용해 길(Siab)을 적층하고 기능을 갖는 Pod를 연결해 거리의 이미지를 건물내부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환경 친화

내부 기온의 인공 조절보다는 가능한 주어진 자연 조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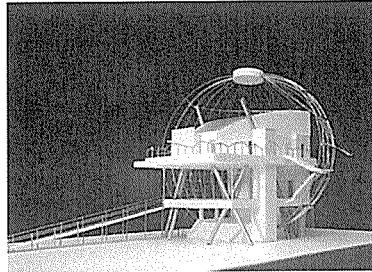
- Solar system
- 루버-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한다.
- Sunken-나무가 잘자라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남측으로 열어주고 층고를 높게 함

상점 구성

기존의 상자 모양의 Pod를 Slab 형태로 변형하고 그 위에 가변적인 상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장려상 / Start Point

박병규(계원조형 예술대학 건축디자인과)  
 이운미(계원조형 예술대학 건축디자인과)



새로운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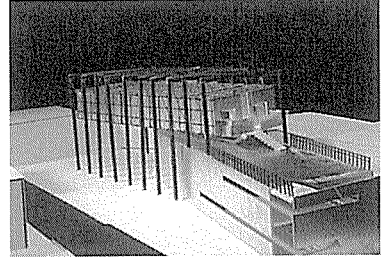
그 출발을 의미하는 점과 그 점을 중심으로 터져나가는 힘의 속도감을 표현한 건물이다. 점은 우리들의 국가적 위기를 헤쳐나갈 유능한 사업가, 정치인 등의 중심지가 된다. 작게는 벤처기업 등 과거와는 또 다른 힘이 전국에서 생명력있는 정열을 발산할 것이다.

그 점의 모양을 형태로 잡고 슬래브는 피라미드식 기둥이 하중을 받아 지하 중심에까지 전달한다. 1층의 내력벽을 제외한 2층의 벽과 3, 4층의 지붕은 유리로 처리하여 넓은 View를 주었다.

반구 모양의 트러스는 내부는 감싸 안은 듯 안락함을 주고 각각의 시야에서 보이는 반구와 슬래브는 색다른 조화를 만들 것이다. 동선은 1층의 처마밑과 같은 느낌의 실외전시공간을 지나 좌측으로 돌면 2층 갤러리로 가는 계단, 우측으로 돌면 3층으로 가는 나선형 계단이 있고, 각각의 창은 구밖을 볼 수 있는 테라스 역할을 한다. 반구의 구조는 트러스로 지반까지 연결되고, 주기둥과 연결 서로를 잡아준다.

▶ 장려상 / 불협화음

김은미(계원조형 예술대학 건축디자인과)  
 김미성(계원조형 예술대학 건축디자인과)  
 송제남(계원조형 예술대학 건축디자인과)



Design Concept

성격이 다른 두 공간,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공간 교화와 상가, 성스러운 공간으로 인식되는 교회와 세속적 공간이랄 수 있는 상가와와의 만남.

두 공간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공존하고 있다.

그 속에서 빛바래기, 쉬운 교회의 공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다.

Site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주택가들이 있으나 도심의 가운데로 상가들이 주로 자리하고 있는 도로변을 끼고 있는 장소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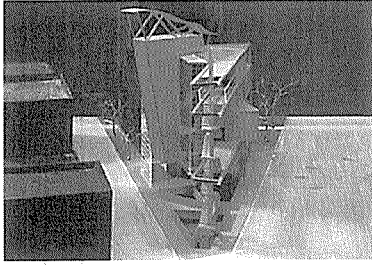
1층과 2층의 상가 부분은 철근콘크리트 3층 교회부분은 강구조로 외부벽이 유리 프레임으로 형성되어지고 1층에서 3층까지 연결이 되는 긴 아이빔과 3층 천정부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이빔은 서로 직각으로 만나 1m아래의 교회를 가는 철선으로 잡아주고 있다. 보가되는 천정부의 아이빔은 다시 굽은 봉으로 3층의 프레임들과 만나 다시 한번 3층을 고정시켜준다.

동선

출입구는 2개. 하나는 교회를 가기 위한 계단으로 형성되어 1층에서 3층까지 바로 갈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하나의 출입구는 도로를 면하고 있는 곳에 상가를 가기 위한 계단이 3층까지 연결되어 있다.

▶ 장려상 / 인사동 II

김 석(국민대 대학원 건축학과)  
 엄민호(국민대 대학원 건축학과)  
 오승섭(국민대학교 건축학과)



해석 1

· 기능주의에 가려진 인사동  
 도심의 한공간으로서의 인사동 고서, 그림, 공예품, 그리고 오래된 한옥들... 옛이라는 의미로 우리 마음의 정서를 지배한 지 오래이다. 이렇게 우리의 정신문화를 지배해온 인사동이 언제부터인가 멀어지고 잘 느껴지지 않으며 혼동이 오고 있다. 물질만능이란 것 기능주의의 허물이 우리의 정신문화를 가로막고 있어 인사동은 안쪽으로 점점 밀려들어가서 대로변에는 소위 근대적이라는 건물군들로 인해 외곽을 가로막히는 이중적 성격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해석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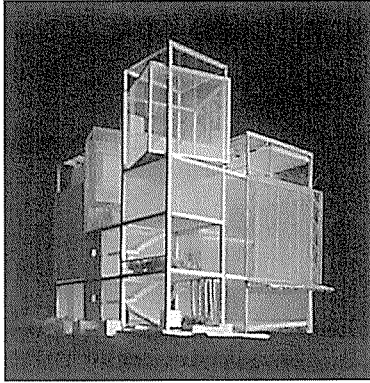
· 더 나아가서 우리의 도시는?  
 이러한 이중적 구조는 도시를 전통성과 단절시키며, 역사적 문화환경이 빈약한 도시로 전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근대적이라는 도시구조는 단지 우리들의 진부한 하루하루의 삶을 위해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해석 3

· 인사동 안에 있지만 인사동 안에 없는 대지  
 문화로 향할 때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지만 우리는 대지를 냉대해 왔거나 심지어는 알아보지 못하며 때로는 무시해 왔다. 그러나 문화의 축(종로-인사동 거리)과 도시기능의 축(종로-안국동)의 이중구조의 접점에 방치된 이 대지는 감추어진 인사동의 입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것이다.

▶ 장려상 / Dualism

임규한(충남대 대학원 건축공학과)  
 전성진(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구희정(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철골 구조물은 건식으로 빠른 시공이나, 재생에 있어 환경친화적인 반면 보로 인해 층고가 높아지고 주변레벨과 어울리지 못하거나 방재에 대한 대응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 작품은 철골이 가지는 강직한 구조적 미학(美學)과 Torsion과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건축적 감흥과, 도시적 Context와 문화적 환경특성이 담긴 도심의 소공간을 건물과 부지로 끌어들이 Program 자체가 도시와 작용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이 대상부지내의 강력한 장소성은 물적 환경 외적인 것들에 의해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되며, 그러한 장소성에 걸맞는 오브제로써, 이정표로써 작용되길 원한다. 그것은 단일 오브제가 아닌 블럭(지구)내의 입구(Node)적 특성과 함께 기존의 장소성 강화에 기여하여야 하며 건물형태인 Cube는 그러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근대 모더니즘을 비판하고 도시와 건물과의 관계를 역설하려하면서도 오브제로 작용하고자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 개별성과 특수성의 문제인 듯 싶다. 도시외부공간을 내부로 끌어들이며, 동시에 내부를 외부로 투영시켜 주고, 문화적 영역성의 보존과 포화된 상업성의 고수, Solid와 Void한 면과의 대응과 대비, Program 전반을 지배하는 이러한 이중적 성격은 회색이기보다 중용이고 싶은 대목이다.

▶ 장려상 / Steel Leaf

백종태(숭실대 대학원 건축공학과)



건물을 세우는 방법에는 여러 종류의 방법이 있다. 자연의 재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서 정밀하게 가공된 자재로 시공하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방법에는 한 가지의 공통된 원칙이 있다. 세워질 건물에 요구되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최적의 재료를 그 재료에 적합한 방식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쉽게 지켜지지 않는다. 재료에 대한 지식과 실험정신의 부재로 인해 해당 재료에 적합한 기법으로 시공되기보다는 타 구조에 적합한 방식, 혹은 구태의연한 방식이 적용되곤 했다. 이러한 경우는 부조화스럽고 과도한 구조체를 야기하게 된다. 적용될 건물의 기능에 부응하는 최적의 재료와 구조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이다.

이 대지에 들어설 24시간 업종 전용건물에 요구되는 기능 중 하나는 야간에 있어서의 인지성이다. 요란한 간판이 아닌 건물 자체로서 야간의 인지성을 높이기 위해 외관에 투명성을 부과해 다른 건물과 차별된 야경을 주었다. 투명한 외피를 통해 건물 내부의 활동이 바깥으로 드러나 더욱 활동적인 야경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요구에 의한 투명한 외피는 강구조의 강한 인장력을 이용한 방법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모든 문화행위가 그러하듯이 건축문화도 그 시대의 총체적인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 시대정신과 기술의 발전이 어느 것이 먼저 주도한다기 보다는 시대정신이 건축을 주도하기도 하고 기술의 발전이 건축을 이끌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예전의 농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후기 산업사회를 살고 있는 지금은 기술이 정신을 지배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기까지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공모전은 기술에 대한 관심을 건축에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건축재료를 이용한 최초의 공모전으로 그 성격이나 방법에서 관계자들은 많은 고심을 하였다. 처음 시행하는 이번 공모전은 그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하여 보편성 있는 일반 건축물로 그 범위를 넓혀 주제를 선정하였다. 심사과정에서도 주어진 주제에 대한 명확한 해석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이 받아들여졌다. 응모한 작품들은 도시의 맥락이나 가로경관에 대한 해석, 환경친화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철골구조의 조형성에 대한 실험정신 등을 기본으로 하여 많은 가능성을 보여준 수준높은 작품들이었다. 이번 공모전의 운영위원으로 심사에 참여하였던 본인은 심사에서 논의되었던 문제를 중심으로 다음 공모전 참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본다. 응모작품들의 대부분은 철골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아서 구조의 특성을 응용한다거나 하는 실험정신을 발휘한 새로운 제안이 부족하였다고 본다. 이런 원인은 여러가지 있겠으나 다음 몇 가지로 문제의 원인을 요약해 보았다. 첫째 건축디자인에서 구조체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있다. 구조에 대한 고려는 디자인 이후에 그 디자인에 맞추어 적용하는 단계를 뛰어 넘어 기술의 특징을 디자인 요소로 이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품들은 구조를 장식재로 인식하고 있거나 인습적인 적용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다. 구축이라는 과정은 생물체의 구조가 환경에 맞추어 진화하듯이 구축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건축을 향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건축역사의 과정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는 디테일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다. 전통목조건축에서 볼 수 있는 디테일들이 철근콘크리트 구조나 시멘트 몰탈 등에 의한 습식 공법에 익숙해 있는 우리는 디테일이 갖는 질서와 묘미를 잊어 버렸다. 그러나 건축공법에서는 결구의 방법이나 부재의 형상 등 디테일에 대한 이해없이 재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표현할 수 없게 된다. 더구나 공업화를 위한 부품이나 유니트 등의 개발과 활용은 이 시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셋째는 건축설계교육이 편협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지 우려가 된다. 포스트모던 이후 통합성 보다는 표피적 디자인에 치우치고 있는 건축디자인 현실에 학생들도 상업적 작품에 매료되어 부분의 특성이 총체적 특성인양 확대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설계교육 또한 건축의 모든 분야를 종합하는 능력을 무시한 채 개념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

#### Spine

최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이 작품은 철골구조에 대한 실험적 기법을 도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간과 구조에 대한 해석이 분명하며 학생답게 작품의도를 충실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작품은 표현의 세련보다는 표현할 내용을 성실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주변

가로 맥락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나 종합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Float in Air

우수상의 이 작품은 조형성과 표현기법이 뛰어나 심사위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게 했다. 그러나 구조적인 모순과 접합부의 미숙함 그리고 전체 조형성에 대한 창의성의 부족 그리고 4방향성을 갖고 있는 이 건물의 주변환경에 대한 설명부족과 내부공간의 허황으로 건축으로서의 접합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이 작품은 철골구조의 조형가능성을 보여주는 매우 뛰어난 작품이었다.

#### Urban-Relationship

우수상의 이 작품은 철골구조의 특성을 기존 가로 경관과 연관시켜 도시와 건축의 상관성을 새롭게 보여주고 있다.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관계에서 투명성과 서스펜션 구조를 이용한 지층의 개방과 건물 전체에 흐르는 힘의 흐름을 느끼게 한다.

#### Co-Determine

우수상의 이 작품은 건식구조의 특성 중 가변성을 주제로 하여 명쾌한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프로그램의 변화에 따라 공간의 변화를 가능케 하고 있고 그 공간의 변화는 외부 가로환경의 변화로 연결되어 건축물이 새로운 표정을 연출하고 있다.

장려상을 받은 작품중에는 철골구조와 유리가 갖는 투명성을 이용하거나 구성의 자유로움을 넘나들며 구조의 다양성을 공간에 적용하는 등 눈에 띄는 작품들이 있었다. 그러나 몇몇 작품들은 구조의 특성을 공간과 더욱 밀착시켜 해결하거나 구조의 합리성, 그리고 주변도시의 맥락에 대한 충분한 해석과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건축기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다음 공모전으로 이어져 보다 성격이 명확한 공모전으로 자리잡아 가길 기대한다.

### 심사위원

#### 위원장

김규석/동국대 공과대학장, 건축공학과 교수(구조)

#### 위원

심우갑/서울대 건축학과 교수(계획설계)

동정근/인하대 건축공학과 교수(계획설계)

김형우/홍익대 건축학과 교수(계획설계)

이특구/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계획설계)

박영기/연세대 건축공학과 교수(계획설계)

조철호/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구조)

김종락/숭실대 건축공학과 교수(계획설계)

김병현/(주)종합건축사사무소 장,

동국대 건축공학과 객원교수

한민수/인천제철 이사(협찬사)

장성수/동국제강 이사(협찬사)

신영창/강원산업 상무(협찬사)

이용목/한국철강협회 전무(클럽 사무국장)